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응급의료과, '19. 7. 8.(월))

□ 회의 개요

- (목적)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최종 자문
- (일시·장소) '19. 7. 4.(목), 13:30~15: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사무소 대회의실
- (참석) 복지부, 전문가, 연구진 등 17인 ☞ 붙임 참고

□ 주요 내용

< 재지정제도 및 평가제도 관계 설정 >

- 연구진이 제시한 재지정제도 및 평가제도의 목적·역할은 적절
 - ※ (재지정제도)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 성과가 낮은 소수의 기관을 탈락
 - (평가제도) 응급의료 질 보장, 성과가 높은 다수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절차 면제는 타당하며, C등급 기관은 재지정 취소 이전에 C등급 사유 분석 필요(지정취소의 타당성 측면)

< 평가제도 >

- 평가제도는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하되, 그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상대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
- 필수기능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성과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도달 목표를 유도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 ※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다보면 기관 간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큰 틀에서 제시하되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방향

- 수가연동지표는 수가와 직접 관련된 것들로 한정하고, 특정 지표를 수가에 연동하기보다 여러 지표 **합산 방식**이 더욱 타당

※ 개별 기관의 사정이 다양하므로 지표 합산을 통해 이를 보완

- 권역/지역별 평가 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기준 마련 필요(수도권↔지방 격차, 특·광역시↔도 격차 고려)
- **평가지표 수를 줄이는 방향** 필요. 변별력 없는 지표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지표는 삭제(평가체계는 오랜 세월의 산물인 만큼 지표 추가 삭제 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
- 평가제도가 실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연구·고민**해야 함

□ 향후 계획

- 결과보고회 자문 내용 반영하여 보고서 보완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7.23)

※ 연구기간: '18. 12. 12. ~ '19. 7. 9.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보건복지부 (3)	응급의료과	과장	박재찬
		사무관	강민구
		주무관	홍주형
전문가 (7)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	문성우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원영
	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창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임정수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성규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	정은희
연구진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신현웅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한갑수
	연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	박유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오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보은